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홀로 뿌린 데모 전단

윤 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1976년 12월, 진눈깨비 날리는 서울대 도서관 앞에서 한 학생이 경찰을 따돌리며 홀로 전단을 뿌리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 독재의 추악상을 감추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인다는 내용이었다. 흩날리는 눈발과 함께 구경만 하는 학생들.

미국 의회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박동선 스캔들이 그 4학년 선배의 시위로 국내에도 알려져 박 정권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숨죽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지개를 켰고,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부마사태로 이어졌고 박 정권은 김재규의 총성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이범영, 그가 겨울 교정에서 외롭게 외치다 잡혀간 지 3년 만이었다.

그리고 44년이 흘렀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대한민국, 입법·행정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독주만 하는 문재인 정권, 사법부까지 흔들어 대는 권력의 오만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힘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그 선배가 떠올랐다. 학생일 뿐인 그가 세상을 바꾸는 물꼬를 트지 않았던가.

3년 전 조국 사태로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총장의 용기를 보며 그를 만났다. 다행히 그는 지혜로운 검사로 보였다. "윤 총장! 지금 이 어두움을 걷어내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불러낼 겁니다." 말이 씨가 되었는지 1년 후 그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이라도 다 된 듯 걸음걸이며 말투가 지나쳐 보였다. 국민의 성원이 지속될까? 그의 부풀어 오른 자신감에서 바람을 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경력이든 학식이든 인품이든 윤석열에게 뒤지지 않을 인물을 찾기로 했다. 안철수가 떠올랐다. 일면식도 없는 그를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더니 후배가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해 위축돼 있던 그를 만나자마자 나는 "윤석열을 위해서도 이번 대선에 꼭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력한 야당 후보라도 견제할 후보가 있으면 자세를 낮추게 되고 그래야만 국민의 마음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대통령 중심의 권력 남용이 사라져야 합니다. 단일화로 공동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안철수는 경선을 제안했다. 윤석열은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안철수에게 돌리고 자강론으로 돌아섰다. 중도의 지지 없이 정권을 잡겠다는 그 무모한 계획에 나는 절망하고 말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권 교체의 키는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3월 1일 아침, 안철수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전화 폭탄으로 통화 중 신호만 계속 들려 왔다. 곧 사전 투표가 시작되지 않는가. 애가 탔다. 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란 말인가. 오후에 다시 전화를 들었다. 안 후보가 받는 게 아닌가.

그는 단일화에 대한 아픈 기억들을 풀어놓았다. 그동안 약속을 지킨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국무총리니 경기지사니 들이대며 거래하는 듯한 협상 태도에도 몹시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그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국민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아픔이 다가와 "나도 밤늦게 글을 쓰고 있으면 지나가던 친구들이 '야, 이 밤중까지 돈 벌고 있냐?' 그럴 때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했더니 그도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30여 분이 지나서야 나는 단일화 문제를 꺼낼 수 있었다. 그러자 그는 "또 철수했다고 비아냥댈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철수하는 게 맞지요." 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럼 내일 마지막 토론회 때 단일화 제안하지요." 나는 뛸 듯이 기뻤다. 3월 3일 새벽 대망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0.73퍼센트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사는 위인만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한 학생도, 한 시민도 역사의 물꼬는 틀 수 있다. 거대한 문도 두드리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나는 이범영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 분명히 체험했다. 어쩌면 비밀로 해야 좋을지도 모를 일을 밝히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기가 닥칠 때 힘이 있건 없건 선한 뜻만 가지면 누구라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진실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정착(定着)

황 성 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최근 들어 '정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어, 이 단어의 의미와 함께 방법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 칠레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제로 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의 삶은 외로움과 같은 고독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었던 삶을 잠시 멈추고, 기다림과 인내, 문화의 충돌과 적응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칠레 원주민들의 말과 마음과 눈빛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꼈다. '정착'은 문화와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 '자리 잡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화의 정착이라면 문화를 수용해 이해하는 것이고 정착한 사회라면 그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가 만나고 대화하는 이들은 이주 노동자와 난민, 북한 이탈 주민들이다. 포괄적 의미에서 이들은 모두 이주민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국을 떠난 이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도맡은 이주 노동자들! 전쟁이나 굶주림 박해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이주할 수밖에 없는 난민들! 굶주림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져 '정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착'이 말보다 쉽지 않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천구교 광주대교구 이주민회관'을 찾는 베트남·필리핀·동티모르 친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합법적 이주 노동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한다. 어렵게 우리나라로 입국해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도 그렇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정착'은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삶에 대한 변화·조정·포기 등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의 문화가 이미 자리잡고 있어 항상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주민의 말을 하고, 원주민의 음식을 먹으며, 원주민의 풍습과 관례를 알고 함께해야 '정착'할 수 있기에 어렵다. 이주민들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착'지의 원주민들과 통합되기 위해선 원주민들의 삶의 토대인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의 문화를 말살하는 것은 서로의 문화를 말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주민의 받아들임과 적응을 위한 인내는 곧 원주민들의 이해와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착'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정착'지를 찾는 이주민과 그것을 바라보는 원주민 사이에서 '정착'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먼저 '정착'지의 토대에 자리 잡는 것이다.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토양에 옮겨 심는 것처럼 자리 잡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착'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뿌리가 그 토양의 흙들을 감싸 양분을 섭취하면서 튼튼하게 자라 안착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은 원주민들의 환대와 보호, 곧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정착'하려는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좋은 토양일까?

'정착'하려는 이들을 보고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의 것을 잃게 될 것이고 급기야 이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정착'하여 잘 안착한 이주민들의 문화와 원주민의 문화는 당연히 충돌할 것이다. 그런데 이 충돌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배타심과 차별을 넘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무관심과 차별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속 증가하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상기해 본다. 마태오 복음 25장 35절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기 고

농촌 드라마의 부활을 꿈꾸며

전 명 환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위드 코로나로 규제가 완화된 요즘 예전보다 외출이 늘어난다곤 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TV나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미드(미국 드라마)뿐 아니라 K한류를 이끄는 일부 콘텐츠들은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는 너무나 즉흥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극적이다. 또한 불과 며칠 뒤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멋진 정책 대결 대신 상호 비방으로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가족과 이웃들의 애환을 함께하며, 고향 농촌의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해줬던 '전원일기'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를 다시 보고 있다.

세대·이념을 둘러싼 갈등을 쌓아 폭발시키는 요즘 일반적인 드라마와는 달리 편안하고 잔잔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전원일기'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등의 농촌 드라마는 화합과 사랑으로 그 결말을 이끄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드라마다. 잔잔한 감동과 함께 무언가 뭉클한 여운이 남아 20여 년 동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농촌 드라마들은 가족 간의 따스한 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했고 우리네 농촌 이웃들의 따스한 마음을 잘 묘사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도시민들의 각박한 삶에 잠시나마 위안을 준 것이 당시는 물론 지금 다시 보기 열풍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

알다시피 현실의 우리 농촌은 옛 드라마 속 농촌과 사뭇 다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르신들만 남아 한적함을 넘어 고적(孤寂)하고, 드라마처럼 3~4대가 북적이고 부대끼며 사는 세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전처럼 소박하고 유대감 넘치는 모습을 현재의 드라마로는 모두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차츰 소멸되어 가는 우리들의 고향인 농촌 고유의 감동과 가족, 이웃간의 정을 담아 농촌 드라마를 부활시키는 것은 귀농·귀촌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 등에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종료되었던 우리네 농촌 드라마에 대한 최근 다시 보기 열풍은 급격히 변해 버린 우리네 삶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화와 기계화의 편리함과 세련됨 그 이면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텃밭이 있는 넓은 전원주택을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인데'하고 아쉬워하지만, 현실 속 우리는 일자리, 의료 및 문화 혜택 등의 이유로 쉽게 도시를 떠나지 못한다. 마음 저 한구석에 있는 농가 주택보다는, 부동산 재테크 등의 목적으로 비싸지만 좁은 평수의 도시 아파트가 어쩌다 모두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현실이 빠진 환상의 공간에 매료되어 귀농·귀촌을 하였으나 막상 마주친 현실 앞에서 발길을 되돌리는 이들도 많다. 또 대도시는 좋은 일자리가 적어서, 농촌은 일손이 늘 부족해서 걱정이다. 현실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정책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네 고향이자 안식처인 농촌도 이 드라마들처럼 종료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과거 유럽·미국등 선진국들의 리더들도 농업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들뿐 아니라 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 세계의 셀럽(유명 인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생명 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농업·농촌은 식량 안보, 환경 보전, 경관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 사회 유지, 수자원 확보·홍수 방지 등 공익적 기능을 누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생명 기반 산업인 농업과 고향인 농촌은 그렇기에 지속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네 농업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2의 농촌 드라마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농업·농촌도 이를 지방소멸 속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농촌을 주제로 국민적 공감을 주고 그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농촌 드라마가 부활되기를 기대한다.

社 說

무더기 정원 감축이 지방대 살리는 대책인가

광주 지역 대학들이 2023학년도 신입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감축한다. 이는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심화하는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광주 지역 대학들이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르면 A대학은 147명, B대학은 60명, C대학은 94명, D·E대학은 각각 30명 등 다섯 개 대학에서 400여 명을 줄인다. 이들 대학은 2024·2025학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신입생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부당한 정원 감축 방식이 지역 대학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감축 대상 학교와 감축 비율을 결정할 때 기계적으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구와 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돼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방 대학 위기에는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의 책임이 크다. 교육부가 1996년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이후 신생 대학이 대거 탄생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 20개 대학, 1998년 7개 대학에 이어 2011년까지 63개 대학이 신설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빚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인 셈이다.

이처럼 지방대학 위기는 학내 요인이 아닌 저출산과 수도권 자원 집중 등 복합적인 사안에서 다뤄야 할 국가 의제다. 지방 대학을 시장 논리에 맡긴 다면 살아남을 대학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역 대학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더기 정원 감축은 지방 대학 위기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유권자의 시간'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51개(광주·전남 3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도입된 사전 투표는 그동안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읍면동마다 하나씩 설치되는 사전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체장·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 투표용지 일곱 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다만 단독 출마 등으로 이번 선거에서 크게 늘어난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용지가 적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 투표 이틀차인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투표 안내 문자, PCR·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사전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선과 총선에 비해 낮고 곳곳에서 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전 투표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이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각 가정에 발송된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전과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 그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無等鼓

22일간의 연주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던 5월이 지나간다. 5월 한 달이 다 그렇지만 '5월 27일'은 유난히 아리고 슬픈 날이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릴 잊지 말아 주십시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전남도청, 최후 항전에 나선 시민군들이 중무장을 한 계엄군에 의해 17명이나 사살되고, 100여 명 이상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했다. 5·18민중항쟁 마지막 날이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 '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 특히 50대 후반 이상의 세대들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라는 살아남은 자의 부채 의식이 있다. 그래서 '5월 27일'은 5월의 어느 날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응혈된 상처이다.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5월 27일에 발생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얘기가 있다. 1992년 5월 27일, 유고 연방 탈퇴를 선언한 뒤 내전에 휘말린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에 연방 탈퇴를 반대하던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쏜 폭탄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무고한 시민 22명이 숨졌다.

다음날 오후 4시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큰 가방을 들고 사고 현장에 나타났다. 저격병들의 총구가 겨누어졌지만 그는 첼로를 꺼내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G단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22명을 추모하기 위해 22일 동안 같은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 연주를 했다. 그는 사라예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였다. 세르비아 민병대의 저격 위험도 있었지만 그는 다행히 22일간의 추모 연주를 무사히 마쳤다. 스마일로비치의 위대한 용기와 전장 속에 핀 음악의 감동 스토리는 캐나다의 작가 스티븐 겔러웨이에 의해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소설로 출간되기도 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한 5월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5·18 부활제가 27일 열린다. 전남도청에서 희생된 17명 한 명 한 명을 추모하는 17일간의 연주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본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